

정읍시 소하천 친환경 대대적 정비

216억 투입 재해 없는 도시 조성
소성면 문언소하천 등 8개소 공사
준설·수목 제거·제초 작업 병행

정읍시가 기후 변화에 따른 풍수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올해 대대적으로 하천을 정비한다.

정읍시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총 216억원(국비 5억, 도비 50억, 시비 151억)의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 하천 정비사업에 나선다.

시는 올해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해 감곡면 일원의 감곡천(감곡·통석 지구) 지방하천 정비공사 7.51km 구간에 77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소성면 문언소하천을 포함한 8개소, 총 8.98km 구간의 소하천 정비공사에도 83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 대상지는 소성면 문언소하천(1.47km), 용동면 내동소하천(0.78km), 감곡면 방교소하천(2.33km), 소성면 보화소하천(0.93km), 덕천면 상학소하천(0.57km), 신태면 산정소하천(0.30km), 이평면 산매소하천(0.60km), 감곡면 오단소하천(2km) 등 총 8개다.

시는 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기존 하천의 기능 유



정읍시가 기후 변화에 따른 풍수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하천을 정비한다. 감곡천 지방하천 정비공사 현장. (정읍시 제공)

지에도 힘을 쏟는다.

국기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약 56억원(국비 5억, 도비 6억, 시비 45억)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준설 작업과 자생 수목 제거, 제초 작업 등을 병행해 하천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킬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230억원을 투입해 지방하천 21개소(13.1km)와 소하천 4개소(2.32km)의

정비를 차질 없이 완료하며 재해 대응 능력을 높였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들의 건강도 향상될 수 있도록 친환경 자제로 하천 환경을 가꿔 더욱 안전한 정읍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의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귀농귀촌인 대상 농기계 사용교육이 진행 중이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 귀농귀촌인 정착 최대 2000만원 지원

20일까지 거주지 행정센터 신청

정읍시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돋고자 주거환경 개선 및 영농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2026년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농가주택 지원과 영농정착 지원 등 다각적인 혜택을 제공해 귀농귀촌 초기 단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돋는 데 목적이 있다.

농가주택 지원은 가구당 최대 800만원을 기준으로 농촌주택 신축(설계 포함), 노후 농가주택 수리 등에 해당된다.

영농정착 지원의 경우 65세 이하는 가구당 최대

1000만원, 20대와 30대 청년 가구는 1500만원·결혼 가구는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 지원금은 농기계 구입, 저온 저장고 설치, 비닐하우스 신축 등 영농기반을 마련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귀촌인이 대상이며 귀농귀촌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오는 2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인 ‘그린대로’ 내 정읍시 자자체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DK 디케이 주식회사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숨.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고창군 2월 이달의 새 ‘흰꼬리수리’ 선정

고창군이 2월 이달의 새로 ‘흰꼬리수리’를 선정했다. (사진)

고창군은 최근 국내 여러 지역에서 흰꼬리수리의 번식 사례가 보고되고, 고창갯벌에서도 매년 겨울철 꾸준히 관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월 이달의 새로 선정했다.

고창군에는 매년 흰꼬리수리 2~3개체가 고창갯벌식물원 인근 바위섬 일대를 찾아오고 있다.

흰꼬리수리는 넓은 날개폭과 날카로운 발톱을 지닌 대형 맹금류로, 해양 생태계를 대표하는 최상위 포식자다. 국내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주로 북동아시아와 극동 러시아 지역에서 번식한 뒤, 겨울철 남하해 서해안 갯벌과 간척지, 하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운옥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흰꼬리수리와 같은 최상위 포식자가 고창갯벌을 지속해서 찾는 것은 갯벌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



호”라며 “앞으로 고창갯벌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철새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지난 2일 고창군청에서 열린 ‘2026년 반부패 청렴정책 설명회’에서 심덕섭 군수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부패발생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 전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설명회’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

고창군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전 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방향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소개, 2025년 고창군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2026년 반부패 청렴정책 중점 추진사항 및 각 부서별 협조사항을 비롯해 고창군 부패취약분야 논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

심덕섭 군수 주재로 반부패 청렴 정책과 추진 목표를 전 직원과 공유했고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고장’ 이란 비전 실현을 함께 다짐했다.

심군수는 반부패 청렴교육 및 반부패 법령 준수 여부 자체점검 강화, 군민행복 민원상담사 등 군민 권리보호 제도 안내,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소극행정 근절 등을 강조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부패발생 차단을 위해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남원시 춘향제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다음 달 27일까지 모집

남원시가 4월30일부터 5월6일까지 펼쳐지는 ‘제96회 춘향제’의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참가자를 다음 달 27일까지 모집한다.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는 춘향제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올해 춘향제는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킨다’를 주제로 글로벌 문화아이콘으로서의 춘향을 조명하고 참가 대상과 무대를 국제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 축제를 넘어 세계인이 함께하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을 만들어 낼 계획이다.

전통적 아름다움은 물론 춘향의 정신과 가치에 대한 이해, 글로벌 감각과 소통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회의 참가는 국내외 국적자 모두 가능하다.

서류심사와 예선심사를 거쳐 선발된 본선 진출자는 4월30일에 열리는 제96회 춘향제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